[러시아] 러시아 소매업체, 수입 과일 및 야채 선호

러시아에서는 야채들이 지속적으로 과잉 생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매업체들은 여전히 러시아 국내산 보다는 수입 농산물을 더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조사 결과는 슈퍼마켓 체인 업체들과 타협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러시아 농산물 생산업체들에 정기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조사업체인 'Fruit-Inform' 에 의해 밝혀졌다.

러시아 소매업체들은 수입 농산물을 선호하는 상황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다. 즉, 국내산 과일과 야채의 품질이 수입 농산물을 선호하게끔 한다는 것이다. 러시아 국내산 농산물은 품질별로 분류되고 손질되어 포장된 수입 과일 및 야채들과 경쟁할 수 없을 때가 많다는 것이다.

러시아 국내산 당근의 경우, 농장에서 판매되는 가격은 현재 킬로그램당 4-5 루블 (0.10-0.12 유로/kg) 정도에 형성되어 있는 반면, 중국, 폴란드, 네덜란드, 벨기에에서 수입되고 있는 당근은 킬로그램당 최저 15 루블 (0.36 유로/kg)로 거의 두 배 차이가 나고 있다. 이러한 가격차이에 불구하고 소매업체들은 더욱 더 수입업체들과 거래하려고 하는 경향을 띄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판매가격이 낮은 시기에는 판매가능 한 상태의 농산물이 판매량에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은 러시아 사과 시장에서도 발견되고 있다. 러시아 사과 생산업체들은 사과를 킬로그램당 20-25 루블 (0.48-0.60 유로/kg)에 판매하고 있으나 소매업체들은 최저가가 킬로그램당 29-30 루블 (0.69-0.72 유로/kg)인 폴란드산 사과를 선호하고 있다.

Fruit-Inform 에서 해당 조사를 진행한 담당자는 지난 2 년 동안 사과 가격이 높아 많은 농가에서 생산면적을 늘리는 한편, 저장시설 확장에 집중해 왔으나 실제로는 일부 농가만 농산물 마케팅 활동에 신경을 써서 높은 가격이 오히려 농가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러시아의 2009-10 년 사과 수입동향을 보면 아래 표와 같다.

국가명	2009			2010		
	수입액 (달러)	수입량 (kg)	수입가격 (달러/kg)	수입액 (달러)	수입량 (kg)	수입가격 (달러/kg)
전 체	536,848,660	1,089,128,884	0.49	632,712,192	1,144,880,219	0.55
폴란드	180,991,360	334,379,762	0.54	206,592,358	344,439,542	0.60
중 국	86,519,855	174,269,400	0.50	79,432,520	154,764,104	0.51
몰도바	48,753,078	135,158,299	0.36	59,109,012	152,395,459	0.39
우크라이나	23,966,326	56,776,859	0.42	43,142,874	96,681,939	0.45
이탈리아	24,864,456	44,988,546	0.55	38,216,832	60,206,128	0.63

세르비아	8,727,576	16,808,639	0.52	37,972,796	62,629,613	0.61
벨기에	20,838,506	38,332,282	0.54	32,208,113	44,891,468	0.72
프랑스	20,479,605	38,574,512	0.53	26,697,375	43,446,915	0.61
칠레	16,676,985	32,393,549	0.51	19,950,354	38,658,979	0.52
독일	9,426,014	16,967,200	0.56	16,832,358	27,184,359	0.62
한국	117,327	94,151	1.25	149,781	132,490	1.13

출처: www.freshplaza.com